

‘원조 연하남’ 지현우, 7년만에 스크린 복귀 “새로운 캐릭터 도전”



부패 정치인 풍자 블랙코미디 ‘살인소설’ 정체불명 의문의 청년 ‘순태’ 역 열연 신랄한 대사 연기에 “쓰면서 외웠죠”

‘원조 연하남’ 지현우(34·사진)가 오는 25일 개봉하는 영화 ‘살인소설’(김진욱 감독)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의 영화 출연은 2011년 ‘Mr.아이돌’ 이후 7년 만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지현우는 “기준에 해보지 않았던 연기와 캐릭터로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살인소설’은 지방선거에 나설 집권 여당 후보로 지목된 경석(오만석 분)이 유력 정치인인 장인의 비자금을 숨기려 애인과 함께 별장에 들렀다가 수상한 청년 김순태(지현우)를 만나 곤경에 빠지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지현우는 선과 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청년 순태 역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별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펼쳐진다. 특히 정치인과 인간 본성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아 블랙코미디 성격도 짙다. 지현우는 “부패한 정치인을 향한 감정을 담은 작품”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라며 뽑았는데 알고 보니 부패한 사람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을 영화

화가 대신 담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주연인 지현우는 극 중 상당한 분량의 대사를 소화한다. 특히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상대를 향한 신랄한 대사를 퍼붓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기타리스트 출신인 지현우는 대본을 통째로 직접 써보면서 대사를 외웠다고 한다. “다소 무식한 방법이지만, 제가 원래 대본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음악을 할 때는 하루 8시간씩 연주 연습을 했어요. 메트로놈에 맞춰 느끼게, 혹은 빠르게 연주를 하다 보면 자기 속도를 찾는 것처럼, 대사 역시 템포를 제가 조절할 수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지현우는 그동안 ‘도둑놈, 도둑님’ ‘원티드’ ‘송곳’ 등 다양한 드라마에 쉬지 않고 출연해왔다. 반면, 스크린 행보는 뜸했다. “영화는 출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는 배우가 티켓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20대 때 제가 보여줬던 이미지는 솔직히 연하남 이미지가 강했고, 장르적으로도 로맨틱 코미디 위주였죠. 그런 면에서 최근 한국영화 트렌드와 제 이미지가 맞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현우는 2004년 KBS 2TV ‘올드미스 다

이어리’에서 까칠한 이미지의 지 PD로 등장,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이어 미혼 도시 여성들의 고민과 사랑, 삶을 그린 SBS ‘달콤한 나의 도시’(2008)에 출연하며 연하남의 대표주자로 각인됐다. 지현우는 최근 정해인·손예진 주연의 JTBC 드라마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그는 “연하남 역을 맡기에는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면서 “나이가 들수록 관객이 허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 같다. 그래도 작품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현우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밝혔다. “20대 때는 연애를 비롯해 모든 면에서 겁이 없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뭔가를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30대가 되니 겁도 많아지고, 연애 감정 역시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일 옥성 때문인지 연애 세포가 죽었다거나 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생각도 들고요.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큰 것 같습니다. 하하.” /연합뉴스

지진희·차태현·배정남·조세호 출연

사막 횡단 버라이어티 ‘거기가 어딘데’

‘1박2일’ 유호진 PD 기획 KBS 2TV 상반기 방송

유호진 PD가 배우 지진희, 차태현, 배정남, 그그맨 조세호를 데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난다. 홍보사 더 빅톡은 “유호진 PD가 연출하는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거기가 어딘데’가 제작에 돌입했다”며 “방송은 상반기로 예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탐험중계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거기가 어딘데’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스태프들은 아라비아 사막을 오로지 자신들의 힘만으로 횡단하게 된다. 예능에 고정 출연하는 것이 처음인 지진희는 ‘연예인 탐험대’의 대장을 맡았다. 그는 평소 압박등반으로 체력을 다져왔으며, 사진 촬영에도 관심이 많아 탐험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제작진은 전했다.



차태현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이어 유 PD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유 PD는 멤버 구성에 대해 “내 사람의 출연 동기와 캐릭터가 모두 다르다. 개성 넘치는 이들의 조합이 의외로 안정적이다. 이들이 어떤 탐험가로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PD와 출연진은 이달 중 오만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스’ 정규 3집 발표 ... 독특한 컨셉 눈길

앨범마다 독창적인 컨셉을 선보였던 그룹 빅스(사진)가 이번에는 매력적인 조항사로 변신했다. 빅스는 17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정규 3집 ‘오 드 빅스’(EAU DE VIXX)를 공개했다. 빅스가 정규앨범을 내는 건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간만의 정규앨범인 만큼 ‘오 드 빅스’는 인터넷시점 예스24에서 4월 9~15일 음반 판매량 1위에 올라 기대감을 모았다. 2012년 데뷔해 7년 차에 접어들어 빅스는 신보를 ‘울컥하게 하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리더 엔(본명 차학연·28)은 “빅스는 처음부터 빛을 봤다기보다 한 계단씩 성장한 그룹이다. 한 번에 크게 성장한 적도, 한 번에 음원차트 1위에 오른 적도 없다”며 “탄탄하게 팀을 만들었다는 게 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갑인 저와 레오(본명 정택운·28)가 입대 시기에 가장 가깝다. 남자에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저희에게 여러 일이 일어



나겠지만 이번 앨범을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보에는 12곡이 담겼다. 그동안 시카직적이고 극적인 컨셉을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후각에 집중했다. 대중에게 향수처럼 스며들어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멤버 대부분이 앨범 전반의 작사·작곡가로도 이름을 올렸다. 빅스는 지난해 미니 4집 ‘도원경’(桃源境)에서 북송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동양의 이상향을 표현해 K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UHD다큐멘터리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복(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역사저널 그날	00 속보이는 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판다랑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3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3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55 뉴스콘서트	00 2018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토에이지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프 2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크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 3부 서부의 열기 속으로)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차돌박이 숙주볶음, 오이초무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띠띠뽀 뽀로로 09:00 뽀뽀뽀 09:15 엠마 까투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4:30 너티나츠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파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하이어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말랄라 뽀로로(재) 16:45 뽀뽀뽀 유치원 1~2(재) 17:15 엠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이란 3부 봄을 아는 축제 노루스> 21:30 한국기행 <봄, 비바다 3부 언니야, 비비고 살자> 21:50 EBS 다크프라임 <천상의 녹색 계단 바나우에 라이스 테라스> 22:45 극한직업 <가목과의 사투, 벌목과 나무집>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정세현 정관>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음 3월 31일 庚辰)

<p>子</p> <p>36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다. 48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번수들까지 감안하자. 60년생 의외의 재물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도전에 불만만 가지가 충분하 있다. 84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95, 10</p>	<p>午</p> <p>42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54년생 사고의 변화가 생긴다. 66년생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환을 막아내야만 한다. 78년생 전체의 판국을 섬멸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90년생 희의를 느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1, 14</p>
<p>丑</p> <p>37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 49년생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 61년생 허탈해지는 형상이다. 73년생 양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85년생 광설이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8, 19</p>	<p>未</p> <p>43년생 참으로 난감할 수다. 55년생 아예 하지 않을 못하다. 67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79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조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91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69, 67</p>
<p>寅</p> <p>38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여 너르다. 50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하였던 비이다. 62년생 외출을 삼간다 면 면역 하겠다. 74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86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29, 89</p>	<p>申</p> <p>44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56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68년생 김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80년생 마음을 비우고 수종의 것에 대한 관리 잘 하자. 92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5, 81</p>
<p>卯</p> <p>39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51년생 승산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다. 63년생 돌발적인 번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75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되리라. 87년생 행운이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52, 37</p>	<p>酉</p> <p>45년생 시기와 범위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하리라. 57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69년생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81년생 반면교사로 삼자. 93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11</p>
<p>辰</p> <p>40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52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64년생 중박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라. 76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88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96, 20</p>	<p>戌</p> <p>34년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6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승선수발한다면 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으니라. 70년생 서두르지 말고 추이를 관망하자. 82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89, 00</p>
<p>巳</p> <p>41년생 영정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53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자. 65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77년생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 89년생 예견과 같이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행운의 숫자 : 59, 16</p>	<p>亥</p> <p>35년생 순응함이 유익하다. 47년생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는 양태이다. 59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71년생 선수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83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33, 2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